

도시재생 위기 극복을 위한 창조도시 성공요인의 중요도 분석과 시사점

The Priority Analysis on the Success of Korean Creative City and Implication

Hye Won Ahn*

38Wolgok-Gil Gangnae-Myeon, Heungdeok-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thought-provoking for the success of the creative city through the analysis of relative priority between success strategies of the creative city and review of theory. Therefore this study deduced basic elements of the creative city from the precedent researches in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and analyzed empirically to the professionals. As a result of analysis of AHP, local professionals suggested the most important things are an establishment of governance and a community and needed system, resource and place for the success of Korean creative city.

Key words: creative city, creative, governance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기존 창조도시 이론의 검토를 통해 창조도시의 성공 전략 간 상대적 우선순위를 분석 한국 창조도시의 성공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외와 국내의 다양한 창조도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창조도시의 기본 구성요소를 도출하여 국내 창조도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적 창조도시의 성공전략 제시를 위한 전문가AHP분석 결과, 국내 창조도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 창조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확립과 커뮤니티 형성이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하며, 아울러 제도의 뒷받침, 자원과 공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적 창조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시정책에 대한 공동목표와 문제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체 마련, 호혜주의적인 사회적 규범과 신뢰 형성, 공동실행을 위한 조직적 학습과 상호주체간 정보공유 등 거버넌스 확립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주민들 간의 교류와 정책에 대한 의사 반영 노력, 지역의 발전을 위한 창의성의 발현과 창조적 인재 육성 노력, 지역 발전을 위한 민관협의체의 다양성과 활발한 활동 등의 커뮤니티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향후, 한국적 창조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창조적 공간의 재발견, 혁신적인 제도의 지원, 창조 자원

* Tel. +82-51-510-1291. E-mail. heywon8151@hanmail.net

Submission & Publication Process

Received: Dec. 1, 2014 / Revised: Dec. 31, 2014 / Accepted: Feb. 20, 2015

의 발굴, 커뮤니티의 확립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문화거버넌스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즉, 지방정부의 역할, 민간기업의 역할, 시민사회의 역할이 정립되어야 한다.

주제어: 창조도시, 창조성, 거버넌스

I. 도입

도시의 흥망은 인류의 발전과 더불어 있어왔다. 특히, 오늘날에는 새로운 도시발전 전략으로써 ‘창조도시(creative city)’가 주목받고 있고, 세계 여러 도시들이 창조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이에 학자들도 제각각 성공적인 창조도시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학자마다 나름의 관점으로, 각기 다른 도시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창조도시란 어떤 도시이며, 어떻게 생겨나는가? 창조도시가 되기 위한 도시경영의 표준 전략은 없다. 즉, 창조도시에는 표준설계도가 없고 래시피도 없다. 모든 도시는 각자의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강형기, 2010: iii).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창조도시에 대해 연구하고, 많은 도시들은 창조도시를 표방하며 창조도시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볼 때, 이 ‘창조도시’는 오늘날 도시 발전의 중요한 화두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창조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 세계 창조도시로부터의 교훈을 찾고자 한다. 즉, 기존의 창조도시에 관한 이론과 학자들의 주장을 검토하여 이러한 창조도시 성공전략을 한국적 상황에 맞게 제시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기존 학자들이 제시하는 창조도시의 요건¹⁾인 창조도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 창조산업, 창조계급²⁾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커뮤니티 등의 요인들이 정부부문, 산업부문, 시민부문 속에서 거버넌스 형성을 통해 조화롭게 작용할 때 비로소 창조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도시위기 극복을 위한 도시재생의 일환인 창조도시에 대해서 살펴보고, 특히, 한국에 유용한 창조도시 성공전략을 제시하고, 지방정부와 지역공동체의 역할과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창조도시 이론의 검토를 통해 창조도시의 성공 전략 간 상대적 우선순위를 분석 한국 창조도시의 성공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II. 이론적 논의

- 1) 강형기(2010)는 창조도시 즉, 지역창생의 조건으로 정치제도적 조건(위기감의 공유, 지역간 경쟁체제의 확립, 지방분권과 정부의 지원체제 확립), 공간적 조건(문화적 환경의 정비, 창조산업의 기반조성, 창생의 교두보 조성), 인간적 조건(리더와 다양한 인재의 육성, 네트워크의 구축, 관용성의 함양)을 제시한바 있다.
- 2) 창조계급은 Florida가 제시한 것으로써, 초 창조적 핵심과 창조적 전문직의 두 가지를 의미하며, 특히 초창조적 핵심은 IT 및 바이오 등 자연과학계의 연구개발 R&D나 이노베이션에 관련되는 직업뿐만 아니라 영상·음악·무대예술·미디어 아트 등 예술계의 직업집단도 포함하고 있다(Florida, 2007).

1. 도시성장의 접근방법과 창조도시

1) 도시성장과 창조도시의 관계

도시패러다임 내지 새로운 도시 유형으로서 ‘창조도시(creative city)³⁾’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이다. 창조도시의 핵심적 가치는 무엇보다 창조성에 있다. ‘창조성’은 영국 빅토리아 시대 John Ruskin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사회는 기능성과 유용성을 중요시하는 공리주의의 유행으로 인간소의 현상 등이 나타나 인간의 창조성은 무시되었다.

그러나 John Ruskin(1851)은 「베네치아의 돌」에서 인간의 창조활동과 향수능력을 강조하며 베네치아 고딕양식의 표현양식에 주목, 고딕양식에서 발견되는 것은 ‘생명과 자유의 상징’으로 권위에 대항하며 자유로운 발상과 기획으로 이루어진 장인들의 창조적인 활동으로 평가하면서부터이다(박연곤, 2006: 156). 이러한 Ruskin의 영향은 이후 William Morris에게 이어져 그는 일(opera)⁴⁾ 속에서 ‘창조성’의 개념을 찾고자 하였으며, 20세기 초 산업화로 인한 기계적인 모습의 거대도시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역계획을 통해 창조적인 삶을 조성할 수 있는 도시의 모습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Lewis Mumford에 의해 구체화되었다(전지훈, 2007: 28-33). Mumford는 지역계획은 새로운 보전이며 자연자원과 공존하는 인간가치의 보존(Mumford, 1961: 54)이라며 오늘날의 창조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주장하였다. 따라서 도시에 창조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한 것은 Mumford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창조도시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Jane Jacobs(1961)에 의해서다. Jacobs(1961)는 아담 스미스의 고전 『국부론』을 옆두에 두고서, 창조적인 도시경제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국민경제 발전의 전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Jacobs(1961)가 주목하는 것은 뉴욕이나 도쿄와 같은 ‘세계도시’가 아니라, 중부 이탈리아의 중소도시인 볼로냐와 피렌체이다. Jacobs는 이들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특정 분야에 한정된 중소기업군이 혁신(innovation)에 속달되었고, 유연하게 기술을 구사하는 고도의 노동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Jacobs는 이들 도시의 주역인 장인기업이라는 영세기업들의 네트워크형 집적이 보여주는 ‘거대한 소기업군, 공생관계, 직장 이동의 용이함, 유난성, 효율성, 훌륭한 적응성’에 경탄하며, 그 특징을 수입대체에 의한 자전적 발전과 이노베이션 및 임프로비제이션에 의한 경제적 자기수정 능력 또는 수정자재형 경제로 파악하였다⁵⁾. 이처럼 Jacobs의 ‘창조도시’는 탈대량생산 시대에 풍부한 유난성과 혁신적인 ‘수정자재형’ 도시경제 시스템을 갖춘 도시라고 말 할 수 있다(사사키 마사유키, 2001; 정원

3) ‘창조도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Jane Jacobs(1961)의 ‘도시와 국가의 부’라는 저서에서 국민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경제를 창조적으로 부흥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이탈리아의 볼로냐와 피렌체의 창조적인 도시혁신시스템을 소개하면서 부터이다(Jacobs, 1961).

4) ‘opera’는 라틴어로 ‘일’을 의미한다(사사키 마사유키, 2001; 정원창, 2004: 41).

5) 수입대체란 선진기술을 타 지역에서 배워 이를 흡수하여 자신의 기술체계로 만들고 타산업과의 관련성을 밀접히 유지하며, 지역 내 시장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식이다. 임프로비제이션이란 재즈, 즉흥연주처럼 조건 변화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사사키 마사유키, 2001; 정원창, 2004: 50-53).

창, 2004: 50-53). 그리고 유럽창조도시연구그룹이 정리한 『창조도시』라는 책이 1995년에 발간되었고, 이 그룹의 Charles Landry가 정리한 『창조도시』라는 책이 2000년에 출판되었으며, 또한 Peter Hall 교수의 명저 『문명 속의 도시』가 1998년에 출판되면서 창조도시가 도시발전을 위한 하나의 접근방법으로서 인식되었다.

이들 연구는 유럽사회에 대한 도시연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유럽사회는 다른 곳보다도 먼저 제조업이 쇠퇴하였고, 젊은 실업자가 증가하고, 종래 채용되었던 복지국가시스템이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들은 복지국가 수정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국가의 재정적 지원으로부터 자립하여 도시가 어떤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 하에 쓰여 졌다(사사키 마사유키, 2001; 정원창, 2004: 51-53). 결국 도시의 쇠퇴로 인한 위기의식은 새로운 도시의 발전 동력을 찾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도시의 ‘창조성’에 초점을 맞춘 창조도시였던 것이다.

또한 창조도시연구그룹은 예술문화가 갖는 창조적인 힘을 살려 사회 잠재력을 끌어내려는 유럽 도시들의 노력에 주목하고, 그 경험을 총괄하여 ‘창조도시’를 이론화하려고 하였다. 특히 Ebert는 예술 활동이 갖는 ‘창조성’에 착안하여, 자유롭고 창조적인 문화 활동과 문화적 인프라가 충실한 도시야말로 혁신에 속달된 산업을 거느리고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에 대응한 ‘창조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그 연쇄반응이 기존의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다’라는 가설을 제시했다(사사키 마사유키, 2001; 정원창, 2004: 51-53).

한편, 강형기(2010)는 경제의 세계화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대도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이 침체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지역정책과 도시경영에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새로운 메타포로써 창조도시를 제시하고 있다. 즉, 도시의 시대인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각광을 받기 시작한 도시창생 전략으로써 ‘창조도시’라는 새로운 도시경영전략은 많은 도시들이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는 가운데, 왜 몇몇의 도시는 지난 30여 년간 급속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잘 적응해왔는가의 고찰을 통해 생성된 개념이라고 제시하고 있다(강형기, 2010: 18-19).

결과적으로 창조都市는 1990년대 후반부터 대두되기 시작, 현재까지도 지역발전을 위한 화두로 연구되어 오고 있으며, 오늘날 대부분의 지역이 경제의 세계화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서 자리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창조적인 노력을 통해 운택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창조하고,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한 애착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해답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창조도시(Creative City)라고 할 수 있다.

2) 창조성과 창조도시의 개념

영국의 문화사회학자인 Raymond Williams는 『키워드』에서 원래 창조적(creative)이란 단어에는 독창적, 혁신적이라는 일반적 의미와, 그와 관련하여 생산적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라틴어 *creare*(만든다, 또는 만들어 낸다)에서 기원한 이 단어가 영어로 유입된 후 16세기까지는 ‘창조주의 신의 행위⁶⁾’와 연관되었는데, 르네상스의 휴머니즘 사상과 함께 ‘인간이 만드는 능력’을 의미하는 뜻으로 확대되었다고 말하고 있다(Raymond Williams, 1976; 김성기·유리, 2010: 116). 한편, ‘창조⁷⁾’의 사전적 정의는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성과나 업적, 가치 따위를 이룩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강형기, 2010: 66).

Amabile(1996)은 창조성이란 ‘창조성이 일어나는 환경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이들 요소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결과’라고 정의하였다. 반면, 경제학자 Paul Romer는 창조성을 인간이 타고난 것으로 사실상 다른 종과 우리를 경제적으로 구분 짓는다고 정의한다(Florida, 2002; 김영인, 2010). 그리고, Coy(2000)가 개인의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생산요소로 투입되어 무형의 가치를 생산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창조경제시대의 출현’을 예고하면서 창조성의 개념이 경제, 기업경영 등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Florida(2002)는 지금의 경제는 인간 창조성에 의해 움직이고 있으며, 창조성을 경쟁적 이익의 결정적인 원천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창조성은 다차원적이고 경협적이며, 다양한 형태를 양성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창조성이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아이디어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창조성의 개념은 새로운 것, 다양성, 인간의 능력 등의 단어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창조도시는 무엇인가?

창조도시는 1990년대 이후 활발히 논의가 되기 시작하였으나, 이에 대한 논의의 시작은 도시의 역할을 인간의 창조성이 집중되고 고무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본 Park(1925)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도시의 창조성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61년 ‘창조도시’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Jane Jacobs에 의해서이다. Jacobs(1961)는 경제적 풍요는 창조도시에서 산업의 다양화를 통해 이뤄지고, 도시 창조성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 문화, 환경, 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연쇄적 반응을 일으켜 기존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후 Jacobs(1984)는 「도시와 국가의 부(Cities and the Wealth of Nation)」에서 자생력 있는 도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이며 탈 대량생산 시대에 풍부한 유연성과 혁신적인 도시경제 시스템을 갖춘 도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이고, 이것이 창조도시라고 주장하였다.

Jacobs 이후 현대의 창조도시에 대한 논의는 Richard Florida, Charles Landry, 사사키 마사유키, 강형기 등의 학자들과 UNESCO 등에서 보다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럼, 창조도시에 대한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Hall(1998)은 그의 저서 「문명 속의 도

6) 이와 관련하여 구약 성경의 창세기 1장을 보면, 신의 천지 창조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데, 르네상스 이전에 창조는 인간이 아닌 신의 영역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성경 창세기 1장).

7) 창조는 ‘만든다, 또는 만들어 낸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creare*’에서 기원하였다. 르네상스 이전에는 ‘창조주, 즉 신의 행위’와 연관되었다. 이후 인본주의 사상이 중시되면서 ‘인간이 만드는 능력’을 의미하는 뜻으로 변화하였으며, 18세기 이후에는 과학기술 및 예술사상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 ‘창조성(Creativity)’이라는 단어는 20 세기에 들어서 나타났다(사사키 마사유키, 2001: 39).

시(Cities in Civilization)」에서 세계사에 있어 중요한 획을 긋는 도시를 역사적으로 나누고, 경제적인 번영과 문화적인 영화와의 관계, 각 도시에 있어 문화적인 요소와 창조적인 환경, 나아가서는 끊임없는 혁신을 가능케 하는 혁신적인 환경을 분석하였고, 예술과 기술의 융합, 그리고 도시의 통치관리의 방향까지 다루어 인류사에서의 도시문명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여 연구하고 있다(사사키 마사유키 외, 2007; 이석현, 2011: 27-28).

Landry(2000)는 그의 저서 「창조도시(The Creative City)」에서 창조도시란 예술과 문화가 지닌 창조적인 힘에 착안하여 자유롭게 창조적인 문화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도시라고 정의하고 있다(박희선, 2011: 5). 또한 상상력이 풍부하면서도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 도시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Landry(2000)는 창의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질, 의지와 리더십, 다양한 인간의 존재와 다양한 재능에의 접근, 조직문화, 지역의 아이덴티티, 도시의 공간과 시설, 네트워크의 역동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Florida(1995; 2000; 2002; 2004; 2005; 2006)는 창조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창조계층이 선호하는 도시가 창조도시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도시의 창조성이 경제성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열쇠로 경제발전의 3T 즉, 기술(Technology), 인재(Talent), 관용(Tolerance)을 제시하였다(Florida, 2002).

사사키 마사유키(2001)는 창조도시란 인간이 자유롭게 창조적 활동을 함으로써, 문화와 산업의 창조성이 풍부하며, 동시에 탈대량생산의 혁신적이고 유연한 도시경제 시스템을 갖춘 도시라고 정의하고 있다(사사키 마사유키, 2001; 정원창, 2004: 53). UNESCO는 창조도시란, 예술문화에 관한 세계적 수준에서의 경험이나 지식, 전문기술을 가진 도시이자 국내외 시장에서의 문화상품 다양성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사회와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문화 예술 면에서 특색이 있는 도시로 보고 있다(김유미, 2009: 9).

강형기(2010)는 우수한 산업·문화·기술의 창조력과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도시를 만들고자 창조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창조도시라고 제시하였다. 고유의 역사와 독창적 문화가 있는 곳은 세계와 소통하는 도시로 발전하며, 이러한 창조도시의 조건으로 위기감의 공유, 지역 간 경쟁체제의 확립, 지방분권과 정부의 지원체제 확립의 ‘정치제도적 조건’, 문화적 환경의 정비, 창조산업의 기반조성, 창생의 교두보 조성의 ‘공간적 조건’, 리더와 다양한 인재의 육성, 네트워크의 구축, 관용성 함양의 ‘인간적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창조경제(Coy, 2000), 창조산업(Caves, 2000) 등 창조도시와 관련하여 유럽과 미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전지훈(2007), 김유미(2009), 김영인(2010) 및 김태경(2010) 등 최근 들어 창조도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존 학자들의 창조도시에 대한 개념은 지역적 배경 뿐만 아니라 개인의 관점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며, 대표적으로 Jacobs(1961)와 사사키 마사유키(2001)는 자생적 경제구조와 커뮤니티를 가진 도시를 창조도시의 모습이라 정의했으며, Landry(2000)는 도심재생의 일환으로 다양한 도시, 개성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창조도시를 주장했고, Florida(2002)는 창조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도시라고 주장하고 있다.

요컨대, ‘창조도시’란 도시발전전략의 한 유형으로서, 문화와 산업을 연계하여 도시의 경제적 회복을 부흥하는 창조산업이 자리하는 도시일 것이다. 그리고, 도시의 공간은 지역과 그 구성원의 창조성을 유발하고, 도시의 창조적 인재와 사회적 연대를 공유하는 공동체로서 창조적 커뮤니티가 도시의 성장을 이끄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표 1> 주요 창조도시 이론

저자	년도	저서/논문
Jacobs, J.	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1969	The Economy of Cities
	1984	Cities and the Wealth of Nations
Landry, C. and Bianchini, F.	1995	The Creative City
Landry, C.	2000	The Creative city: A Toolkit for Urban Innovators
Hall, P. and Landry, C.	1999	Innovative and Sustainable Cities
사사키 마사유키	2001	創造都市への挑戦 (정원창 역(2004) 창조하는 도시: 사람·문화산업의 미래)
Florida, R.	2002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2005	Cities and the Creative Class
강형기	2010	지역창생학

※ 자료: 김태경(2010)에서 재구성.

2. 창조도시의 구성요소

그렇다면, 창조도시의 구성요소는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창조도시를 구성하는 요소를 도출하였다.

1) 창조적 공간

창조도시에서 도시의 구성원인 시민들의 창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도시환경이 필수적이다. Jacobs(1961)는 그의 저서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에서 도시가 창조적 인재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조건으로 다양한 활동과 섬세한 도시형태, 다양한 건물풍경, 그 속의 시민들과 그들의 생활상을 들어 도시의 다양성을 강조하였다. 그녀에게 다양한 도시환경은 유형의 공간뿐 아니라 도시의 분위기와 같은 무형의 요소도 포함한다. 한편, Jacobs가 제시하는 위대한 도시란 사람들의 에너지와 아이디어가 언제든지 혁신과 부로 전환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이다.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더 개방적이고 다양한 도시가 창조적인 사람들을 더 많이 유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Ebert, *et. al.*(1994)는 도시의 창조성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 문화, 조직, 금융 등 각종 분야에서의 창조적 문제해결능력과 그 연쇄반응이

연속적으로 일어남으로써 기존의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도시경제기반을 재구축하는데 창조적인 도시문화와 문화정책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나아가 새로운 도시형 산업인 IT와 멀티미디어산업 등의 창조산업이 도시경제 전체를 얼마나 활성화하는지 등에 대해 비교연구를 하고 있으며 도시경제와 창조적인 예술 활동의 내적 관련을 밝히려 노력하였다.

Peter Hall(1998)은 창의적 사고와 창조적인 계획은 신경제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창조도시의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은 주요자원으로써 창조성은 창조도시 조성의 주요한 방법론으로써 제시하고 있다. Landry(2009)는 창조성이 모든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해결책을 찾을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물리적 또는 비물리적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며, 토지이용으로서의 도시계획을 넘어 도시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문화, 역사, 사회적인 역동성, 즉 소프트 인프라에 관한 보다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창조산업과 문화발전을 통한 도시경제성장의 중심지로서 창조도시는 창조성을 이용하여 지식기반 첨단산업과 문화의 발전을 통해 도시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는 시각이다.

또한, Landry(2000)는 그의 저서 ‘창조도시(Creative city)’에서 도시문제에 대한 창조적 해결을 위한 창조적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내고 운영해 가는가, 그리고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지속해 나가는가에 대한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창의적 환경은 도시의 조직문화 및 도시가 창의적으로 될 수 있는 역량과 관계가 있으므로 창의적 환경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요인과 문화적 창의성 및 혁신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말하는 창의적 환경은 ‘하드웨어’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필요로 한다. ‘하드웨어’ 인프라는 교통, 건강, 어메니티 등과 같은 지원서비스 뿐만 아니라 연구기관, 교육시설, 문화시설과 기타 만남의 장소 등과 같은 일련의 건물과 시설이다. ‘소프트웨어’ 인프라는 상호관련구조와 사회적 네트워크, 상호연계, 그리고 사람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개인과 제도 사이의 아이디어 흐름을 촉진하고 떠받치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사사키 마사유키(2001)는 볼로냐의 사례를 바탕으로 창조도시의 현대적 조건을 정리하며 첨단적이고 창조적인 도시형 산업을 배출하고 발전시키는 인프라와 도시경관, 도시디자인에 이르는 ‘도시의 문화·학술 집적’을 중시하였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2008)는 창조경제의 근간에는 창조산업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창조경제의 시대에서 창의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과학, 문화, 경제, 기술 등 다양하며 국가를 지탱하는 4개의 자본(사회, 인력, 문화, 제도)과 창의성은 상호작용을 통해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강형기(2010)는 지역창생을 위해서는 문화적 환경을 정비하고 창조산업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려면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살아갈 경제를 구축해야 하고 창조적 행위가 받아들여지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아티스트크리에이터가 살고 싶어 하는 창조적 공간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강형기, 2010: 84-102).

이와 같이 창조도시는 도시가 발전하기 위한 창조적인 환경, 창조성을 이용하여 지식기반 첨단산업과 문화의 발전을 통해 도시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창조적 공간이 필요하다.

2) 도시성장을 위한 제도

창조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즉, 도시가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자립을 도모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혁신시스템과 혁신적인 환경, 조직의 혁신, 지방분권화와 같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Jacobs(1961)는 창조도시는 다양성과 적절한 물리적 환경, 사상을 창출하여 인간의 창조성을 이끌어 내는 곳으로 이를 통한 혁신(innovation)으로 유연하고 획기적인 창조적인 도시경제시스템을 강조하고 있다. 즉, 도시 내부의 다양성과 창조성의 원천이 창조적 커뮤니티로의 발전을 선도하고, 이것이 도시경제의 혁신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며 지역의 혁신 시스템을 강조했다. Ebert(1994)는 「창조도시를 위한 문화 인프라와 문화 활동의 중요성」의 연구에서 경제, 문화, 조직, 금융 등 각종 분야에서의 창조적 문제해결능력과 그 연쇄반응이 연속적으로 일어남으로써 기존의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문화와 예술의 다양성, 교육시스템, 자극적인 환경, 사회적 안정, 소동과 불안으로부터의 개방을 포함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스템, 즉 제도의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사사키 마사유키(2001)는 창조도시란 인간이 자유롭게 창조적 활동을 함으로써 문화와 산업의 창조성이 풍부하며 동시에 탈 대량생산의 혁신적이고 유연한 도시경제 시스템을 갖춘 도시라고 정의하며 창조도시에서 도시의 혁신 시스템을 강조하고 있다. 강형기(2010)는 지역창생을 위해서는 지역을 지원하는 제도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지역 창생을 위해 지역 주민 스스로 위기감과 애착을 갖는다는 전제 하에 국가는 이러한 지방을 지원하는 제도를 구축해야 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 간 경쟁체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3) 창조적 인재

창조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창조적 인재도 필요하다. Landry(2000)는 창조적인 사람 없이 창조적인 조직과 창조적인 도시는 존재할 수 없으며, 창조적 개인이란 풍부하게 사고하고 개방적이며 유연하고, 자신해서 지적인 리스크를 떠안고, 종래와는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사고하고 반성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창조적인 도시는 창조적이고 변화 속에서 성공을 발견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고, 창조적 리더는 리더십을 통해 창조도시에 대한 의지, 기지, 에너지와 비전을 도시 및 주민에게 이해시킨다고 주장하였다. Florida(2002)는 하이테크 산업 및 문화산업 전문가와 종사자로 구성된 ‘창조계급’의 등장에 주목하여 그들의 특징과 직업,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선호하는 커뮤니티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들 창조계급이 거주하는 도시나 지역이 경제적 성과가 우수하다는 것을 지표들 통해 밝혀냈다. 사사키 마사유키(2008)는 창조도시의 요건으로 예술가, 과학자, 근로자, 공예가 등이 창의적 활동에 개입할 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자유로운 창의적 활동을 확대 할 수 있는 환경을 강조했다. 이희연(2008)은 도시의 창조적 잠재성을 개발하고 창조도시를 통한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각 도

시마다 고유의 역사를 가지고 특화된 경제, 사회, 문화 및 지리적 환경을 고려해야 하며, 창조계층-창조산업-창조환경의 역동성이 최대화될 수 있는 선결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강형기(2010)는 지역창생의 가장 근본적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고의 관건은 인간적 조건을 구비하는 것이며, 지역창생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제조건 중 무엇보다도 지역의 리더와 리더가 펼치는 인간적 연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창조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창조적 인재가 필수적이다. 즉, 창조적인 사람 없는 창조 도시는 존재할 수 없다.

4) 창조적 커뮤니티

창조도시에 있어 핵심적 요소 중 하나는 무엇보다도 창조적 공간 위에 창조적 인재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들 간의 교류와 연대를 통한 창조성의 발현을 이끄는 커뮤니티의 활성화일 것이다. Jacobs(1961; 1969)는 문화적, 예술적인 활동이 활발한 곳에서 개별성과 차별성이 두드러지며, 사회적 연대감으로 인하여 창조적 공동체의 특성이 발견된다고 하였다. 또한 Jacobs(1984)는 인간의 창조성을 기반으로 한 창조적 ‘커뮤니티’를 도시발전의 원동력으로 제시하며 도시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창조적인 제품과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김유미, 2008). Ebert(1994)는 소통의 커뮤니티를 강조하였고, 사사키 마사유키(2001)는 창조도시를 위한 지역 내 네트워크의 형성을 강조하며 이것은 바로 커뮤니티가 지역에 형성되어 있을 때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Landry(2000)는 창의적 네트워크의 건전성과 번영에 따라 개별기업의 운명이 결정되고, 그러한 환경의 성숙은 창조도시를 구성하는 영감의 원천이 된다고 설명 하였다. 노다 구니히로(2008)는 창조도시를 목표로 하는 도시들은 ‘도시간 경쟁’의 좁은 울타리에서 벗어나 ‘도시연계’, ‘도시와 농촌의 연계’로 발상을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하며, 현대사회에서 창조도시 구성에 있어 주민참여와 네트워크를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사사키 마사유키, 2001). 강형기(2010)는 도시의 한 지구에 창조의 거점(공간의 창조)을 마련하면, 그곳에 창조적 인재들이 자리를 잡고(인재의 창조), 그들이 상호교류를 통하여 지적 창발(지의 창조)을 자극하면, 산업의 창조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강형기, 2010: 96-102). 한편, 시오사와 요시노리·고나가야 가즈유키(2007)는 지역창생의 가장 실천적인 전략은 창조적 인재가 결집할 수 있는 창조적 거점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메커니즘의 선순환구조를 제시했다(시오사와 요시노리·고나가야 가즈유키, 2007; 강형기, 2010: 96-102).

5) 창조도시의 이론적 함의

다양한 학자들의 창조도시 기본요건을 요약한 결과, 창조도시의 필수 구성요소로서 창조적 공간, 혁신적인 제도, 창조 인재, 커뮤니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가

장 중요한 요소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거버넌스 메커니즘이다.

이처럼, 창조도시는 새로운 도시 유형으로서 각광받고 있으나, 여전히 ‘창조성’이라고 단어가 갖는 근본적인 모호성과 다양성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럽게 여겨지고 있다. 창조도시 개념의 모호성이나 그 실체에 대한 학자들 간의 견해의 차이, 그리고 확립된 모델을 제공할 수 없다하더라도 창조도시의 여전히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서 가치를 가지며, 거버넌스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도시가 갖는 문화와 도시성장의 패러다임을 연계할 때 창조도시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III. 조사 설계

1. AHP방법론

본 절에서는 한국적 창조도시의 성공전략 제시를 위하여, 국내 창조도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AHP방법론을 활용, 창조도시 성공요인간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창조도시 성공을 위한 요인(전략)간 상대적 중요도 분석은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구체적으로 5개의 요인과 각 요인들 사이의 상대적 중요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5개의 측정지표와 각 지표별로 3개씩의 측정기준을 합하여 총 열 다섯 개의 측정기준을 설정하였다. 측정지표는 크게 공간적 요인, 제도적 요인, 자원적 요인, 커뮤니티 요인, 거버넌스 요인의 5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측정지표와 측정항목은 국내외 학자들이 제시한 창조도시의 구성요건을 바탕으로 추출하였다. 각 측정지표별 측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2〉 창조도시 성공전략 도출을 위한 요인간 상대적 중요도 측정지표

측정지표	측정항목	내용
공간적 요인	도시이미지	창조적 활동이 가능한 도시의 역동성과 도시의 외연적 이미지
	문화적 자산	경제적 자산으로 환원될 수 있는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전통적 문화 요소
	문화 생산	축제, 이벤트 등 새로운 문화적 요소의 창출
제도적 요인	창조산업정책	예술문화산업과 첨단과학기술 등의 하이테크 산업지원과 유치 정책
	시민참여제도	지역 정책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하는 조례, 조직 등
	창조도시정책수립	창조도시를 위한 지방정부의 독립된 도시정책 수립
자원적 요인	창조산업기반	예술문화산업 단지나 첨단과학기술 등의 하이테크 기업의 지역경제 주도
	지역기반사업	지역 전통문화의 경제적 가치창출
	창조산업 다양성	예술문화산업과 첨단과학기술 등의 하이테크 산업과 같은 창조산업이 해당 지역에 위치한 수와 유형의 다양성
커뮤 니티 요인	자발적 주민참여	주민들 간의 교류와 정책에 대한 의사 반영 노력
	창조적 시민활동	지역의 발전을 위한 창의성의 발현과 창조적 인재 육성 노력
	민관협의체 활동	지역 발전을 위한 민관협의체의 다양성과 활발한 활동

〈표 2〉 창조도시 성공전략 도출을 위한 요인간 상대적 중요도 측정지표(계속)

측정지표	측정항목	내용
거버 넌스 요인	네트워크	도시정책에 대한 공동목표와 문제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체
	사회자본	호혜주의적인 사회적 규범과 신뢰
	학습과 정보공유	공동실행을 위한 조직적 학습과 상호주체간 정보공유

창조도시 성공을 위한 각 요인들 사이의 상대적 중요성 및 우선순위 분석에서는 앞에서 제시된 기능별 상대적 중요도 측정지표 및 측정기준 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각각 두 개씩 상호 비교하는 이원비교(pairwise comparison) 방법을 활용하는 AHP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의 표본 집단은 창조도시 분야와 관련된 전문가 25명⁸⁾을 선정, 방문조사 및 이메일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전체 25부 중에서 20부(회수율 80%)를 회수하여 이를 대상으로 계층분석절차(Analytic Hierarchy Process: 이하 'AHP')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 내용은 위와 같이 제2계층 요인 측정 모형에 기초하여 5개로, 제3계층 요인이 15개로 각각 제시되었다. 이들 설문 내용의 구성은 각 문항별로 한 번에 2개 요소를 상호 비교하는 이원비교(pairwise comparison) 방법이 활용되었다. 이원비교에서 사용되는 척도의 범위는 1에서 9까지의 수와 이의 역수들로서 각 문항별로 평가요소간 상대적 중요성 측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와 같이 AHP 설문조사의 응답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 문항별로 전체 사례 N개의 기하평균⁹⁾ 값을 구해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고 우선순위를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각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각 계층별 가중치의 CR은 20%(0.2) 미만에 대해서만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하였다. 즉, 총 20부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CR값이 20%(0.2) 이상인 5부를 제외하고, CR값이 20%(0.2) 미만인 15부에 대해서만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분석을 실시한 15부는 측정목표에 대한 전체 응답자 이원비교의 일관성 비율은 0.05로 측정되어 서수적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0.1보다 작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응답자들의 각 측정영역의 가중치에 대한 일관성 비율 역시 모두 0.2미만으로 나타나, 전문가 의견조사에 의해 설정한 가중치 사이에는 상당히 일관성 있게 이원비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분석결과 및 시사점

1. 측정 영역과 요소

8) 설문조사 대상자는 창조도시와 관련하여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대학 교수 및 연구소연구원 등 전문가 25명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20부를 회수하였다.

9) n개의 양수에 대하여 이들 전부의 곱의 n 제곱근($\sqrt[n]{ab}$)

한국적 창조도시 성공 전략 제시를 위한 성공요인간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거버넌스 요인→커뮤니티 요인→제도 요인→자원 요인→공간 요인 순으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 순위가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국내 창조도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 창조도시가 육성되고, 정착되며,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시정책에 대한 공동목표와 문제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체 마련, 호혜주의적 인 사회적 규범과 신뢰 형성, 공동실행을 위한 조직적 학습과 상호주체간 정보공유 등 거버넌스 요인이 상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주민들 간의 교류와 정책에 대한 의사 반영 노력, 지역의 발전을 위한 창의성의 발현과 창조적 인재 육성 노력, 지역 발전을 위한 민관협의체의 다양성과 활발한 활동 등의 커뮤니티 요인이 우리나라 창조도시 성공에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측정영역별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측정 영역	공간 요인	제도 요인	자원 요인	커뮤니티 요인	거버넌스 요인
상대적 중요성	0.05	0.14	0.08	0.28	0.44
우선 순위	5	3	4	2	1

※ CR < 0.2

구체적으로, 한국적 창조도시 성공 전략 제시를 위한 성공요인간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의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공간 요인에서는 문화생산→도시이미지→문화적 자산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이는 창조도시 구축을 위한 공간 요인에서는 무엇보다도 축제, 이벤트 등 새로운 문화적 요소의 창출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제도 요인에서는 창조도시 정책수립→시민참여제도→창조산업정책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즉, 창조도시 구축을 위한 제도적 노력에서는 창조도시를 위한 지방정부의 독립된 도시정책 수립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자원 요인에서는 창조산업 다양성→창조산업기반→지역기반사업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창조도시 구축을 위한 자원요인에서는 창조산업이 해당 지역에 위치한 수와 유형이 다양해야 한다는 것을 전문가들은 가장 우선시 하고 있다는 것이다.

④ 커뮤니티 요인에서는 창조적 시민활동→민관협의체 활동→자발적 주민참여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창조도시 구축을 위한 커뮤니티 확립에서 무엇보다도 지역의 발전을 위한 창의성의 발현과 창조적 인재 육성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⑤ 마지막, 거버넌스 요인에서는 네트워크→사회자본→학습과 정보공유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이는 창조도시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 확립에서 도시정책에 대한 공동목표와 문제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측정영역별 측정요소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측정 영역	측정 요소	상대적 중요도	측정영역별 측정요소의 우선순위
공간 요인	도시이미지	0.32	2
	문화적 자산	0.11	3
	문화 생산	0.57	1
제도 요인	창조산업정책	0.17	3
	시민참여제도	0.19	2
	창조도시정책수립	0.64	1
자원 요인	창조산업기반	0.34	2
	지역기반사업	0.22	3
	창조산업 다양성	0.44	1
커뮤니티 요인	자발적 주민참여	0.18	3
	창조적 시민활동	0.44	1
	민관협의체 활동	0.38	2
거버넌스 요인	네트워크	0.41	1
	사회자본	0.39	2
	학습과 정보공유	0.20	3

2. 복합가중치 및 전체 우선순위의 분석

한국적 창조도시의 성공전략 제시를 위한 요인간 중요도 및 우선순위에 대한 복합가중치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이 네트워크(1순위)→사회자본(2순위)→창조적 시민활동(3순위)→민관협의체 활동(4순위)→창조도시 정책수립(5순위)→학습과 정보공유(6순위) 순으로 중요도가 측정되었다.

<표 5> 측정요소별 복합가중치와 우선순위

측정 영역	측정 요소	복합 가중치	전체 측정요소의 우선순위
공간 요인	도시이미지	0.0160	
	문화적 자산	0.0055	
	문화 생산	0.0285	
제도 요인	창조산업정책	0.0238	
	시민참여제도	0.0266	
	창조도시정책수립	0.0896	5
자원 요인	창조산업기반	0.0272	
	지역기반사업	0.0176	
	창조산업 다양성	0.0352	
커뮤니티 요인	자발적 주민참여	0.0504	
	창조적 시민활동	0.1232	3
	민관협의체 활동	0.1064	4
거버넌스 요인	네트워크	0.1804	1
	사회자본	0.1716	2
	학습과 정보공유	0.0880	6

이는 국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 창조도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정책에 대한 공동목표와 문제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호혜주의적 사회적 규범과 신뢰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지역의 발전을 위한 창의성의 발현과 창조적 인재육성 노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한국적 창조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화거버넌스체계의 확립과 커뮤니티의 확립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문가 대상으로 조사한 AHP분석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3. 시사점

무엇보다도 사례분석 결과와 실증분석(AHP) 결과를 감안할 때, 창조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거버넌스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즉, 창조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사회자본, 학습과 정보공유 등 문화거버넌스체계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 국내 창조도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 창조도시가 육성되고 정착되며,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시정책에 대한 공동목표와 문제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체 마련, 호혜주의적인 사회적 규범과 신뢰 형성, 공동실행을 위한 조직적 학습과 상호주체간 정보공유 등 문화거버넌스체계 확립이 가장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었다. 특히, 위의 전문가 대상 실증분석(AHP)결과를 고려할 때, 도시정책에 대한 공동목표와 문제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체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창조도시 정착을 위해서는 창조적 시민활동, 민관협의체 활동, 자발적 주민참여 등 커뮤니티 형성이 필요하다. 첫째, 자발적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협의체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지역의 대학 등 창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민간 협의체가 활발히 활동하여야 한다. 특히, 실증분석(AHP) 결과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의 발전을 위한 창의성의 발현과 창조적 인재 육성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해외와 국내의 다양한 창조도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창조도시의 기본 구성요소를 도출하여 국내 창조도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 한국적 창조도시의 성공을 위한 우선순위를 분석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향후, 한국적 창조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창조적 공간의 재발견, 혁신적인 제도의 지원, 창조 자원의 발굴, 커뮤니티의 확립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문화거버넌스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즉, 지방정부의 역할, 민간기업의 역할, 시민사회의 역할이 정립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강형기. 2010. 지역창생학. 서울: 생각의 나무.
 김태경. 2010. 창조도시 이론과 미래도시 발전방향에 관한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김영인. 2010. 도시 창조성 지수 설정과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창조성 비교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유미. 2009. 도시의 창조성이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 일본의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희연. 2008. 창조도시: 개념과 전략. 국토.
- 전지훈. 2007. 창조도시의 개념과 특성에 관한 연구. 추계예술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佐々木雅幸(정원창 옮김). 2004. 창조하는 도시: 사람, 문화, 산업의 미래. 서울: 소화.
- Amabile, Teresa M. 1996. *Creativity in Context: Update to The Social Psychology of Creativity*. CO: Westview.
- Caves, Richard E. 2000. *Creative Industries: Contracts between Art and Commerce*.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 Coy, A. 2000. Special Case in Three-dimensional Bone Reconstruction of the Human Skull. *Journal of Forensic Identification*. 50(6): 549-562.
- Ebert, D. 1994. *The Importance of 'Cultural Infrastructure' and 'Cultural Activities' for the 'Creative City'*. Comedia.
- Florida, Richard. 2000. *Competing in the Age of Talent: Environment, Amenities, and the New Economy*. A Report Prepared by the RK Mellon Foundation, Heinz Endowments, and Sustainable Pittsburgh.
- Florida, Richard. 1995. Toward the Learning Region. *Futures*. 27(5): 527-536.
- Florida, Richard. 2002.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New York: Basic Books.
- Florida, R. 2004. America's Looming Creativity Crisis. *Harvard Business Review*. 82(10): 122-131.
- Florida, R. 2005. The World is Spiky. *The Atlantic Monthly*. 92(3): 22-29.
- Florida, Richard. 2005. Cities and the Creative Class. 이원호 역(2008). 도시와 창조계급. 서울: 푸른길.
- Florida, Richard. 2006. Where the Brains Are. *The Atlantic Monthly*. 298(3): 34-36.
- Hall, P. and Landry, C. 1999. *Innovative and Sustainable Cities*. Dublin: European Foundation for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 Hall, P. 1998. *Cities in Civilization*. London: Weidenfield and Nicholson.
- Jacobs, Jane. 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NY: Random House.
- Jacobs, Jane. 1984. *Cities and the Wealth of Nations*. N.Y.: Random House.
- Jacobs, Jane. 1969. *The Economy of Cities*. N.Y.: Random House.
- John Ruskin(박언곤 옮김). 2006. 베네치아의 돌. 서울: 예경.
- Landry, C. and F. Bianchini. 1995. *The Creative City*. London: Comedia.

- Landry, C. 2000. *The Creative City: A Toolkit for Urban Innovators*. London: Comedia.
- Mumford, L. 1961. *The City in History*.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mpany.
- Park, R., E. Burgess, and R. Mckenzie. 1925. *The C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aymond Williams. 1984. *Keywords. Fontana Communications Series*. London: Collins.
- UNCTAD, UNDP, Brewka, Barbara,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2008. *Creative Economy Report 2008*. New York: United Nations.
- 佐々木雅幸. 2001. *Sozo Toshi Eno Chosen: Sang to Bunka No Ikiduku Machie*. Tokyo: Iwanami Shoten.
- 佐々木雅幸. 2008. 네트워크를 통한 창조도시 개발. 문화도시 국제컨퍼런스. 문화체육관광부.
- 關滿博, 遠山浩 編. 2007. *食の地域ブランド戦略*.
- 高原一隆. 2008. 네트워크의 地域經濟學. 東京: 法律文化史.

안혜원: 충북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논문제목: 한국적 창조도시의 성공전략에 관한 연구, 2012)를 취득하고, 현재 충청대학 경찰행정학부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관심분야는 지방자치, 문화정책, 지역개발 및 재난관리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국가와 지방간 소방사무 재배분에 관한 논의(2013)”, “한국 위기관리분야 사례연구방법에 관한 내용분석(2012)”, “지역축제 활성화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2010)”, “충남지역축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2009)” 등이 있다(heywon8151@hanmail.net).